



시드니 가톨릭 주보

한인

주임신부: 광승룡 비오
보좌신부: 김경수 바오로, 김재준 알베르토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이미영 베르타, 최혜숙 레아
최미란 남미아
사목 협의회 회장: 조숙자 요안나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사목지표

2020

사목지표

“이웃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
형용사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기

“할래요” 실천사항

5월

구역장 반장에게
용기되는 말을 할래요.



대건관 건축 소식
사목협의회 소식
구역 공동체 위원회 소식
sydneykcc.org

미사 생방송 중계
youtube.com/sydneykccm

부활 제4주일

⊕ 전례성가 / 화답송

제1독서: 사도 2,14-36-41

복음: 요한 10,1-10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제2독서: 1베드로 2,20-2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전례성가: 입당: 50 / 봉헌: 340 / 성체: 198 / 파견: 244

화답송: 
주 - 님 은 나 의 목 - 자 아 쉬 울 것 없 어 라

평일미사 (독서 복음)

유튜브 생방송 미사시간 안내	
평일 미사	월 - 토: 오전 9시 30분
주일 미사	주 일: 오전 10시 30분

미사시간 안내 (일시 중단)

월	7:30 pm
화	7:00 am
수	9:30 am, 7:30 pm
목	9:30 am, 7:30 pm
금	9:30 am, 7:30 pm
토	9:30 am
토	4:00 pm (초등부)
토	5:30 pm (중고등부)
일	7:30 pm (청년부)
주	6:30 am, 8:30 am
일	10:30 am (교중)
일	5:00 pm (영어)
일	7:30 pm
시	5:00 pm (시티)
티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영성체송
4일(월)	사도 11,1-18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요한 10,11-18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운데서 말씀하셨네. 평화와 너희와 함께. 알렐루야.
5일(화)	사도 11,19-26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요한 10,22-30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알렐루야.
6일(수)	사도 12,24-13,5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요한 12,44-50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7일(목)	사도 13,13-25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요한 13,16-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8일(금)	사도 13,26-33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요한 14,1-6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9일(토)	사도 13,44-52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요한 14,7-14	아버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하시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알렐루야.



시드니 대교구에 있는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에게 보내는 네 번째 사목 서한
COVID-19 팬데믹의 시기에
2020년 4월 24일

Χριστος ανεστη, Αληθως ανεστη!
Christus resurrexit, Resurrexit vere!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선,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념해왔던 기억에 남는 성주간과 부활대축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몇 주 동안(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공동체 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접근성, 친밀감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모이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인데, 우리의 종교는 매우 성사적이고 물리적이며,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주위에 무릎 꿇거나 서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먹을 수 있을만큼 확실한 하느님과 교감합니다!

격리를 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성주간에는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함께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성지가지기를 흔들며 기쁨에 차서 호산나를 노래하는 성지주일의 군중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체성사를 제정하고, 정원에서 고뇌하는 주님이 배신당하신 날 밤도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함께 해야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성 금요일에 마리아, 요셉과 함께 '십자가로 기어가며' 죽어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도 그렇습니다.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천사들, 성도들(우리의 본당 천사들과 성인들을 포함)과 함께 주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 시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평범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보여준 유연성, 관대함에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COVID19 팬데믹과 가장 이상한 성주간의 시간을 보내며 보여준 사목적인 창의성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수많은 독창적인 사목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사목적인 돌봄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음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근심, 좌절, 외로움과 슬픔을 승화시켜서 안정과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어준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진정으로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목자들과 봉사자들은 전화, 이메일, 지원 키트 등 다른 방법으로 본당 신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교구의 34개 본당은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 미사를 봉헌합니다. 몇몇 본당은 성체 강복, 묵주기도, 영적대화, 젊은이 교리, 그리고 다른 사목활동을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Catholic Care는 지역 봉사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쇼핑과 다른 심부름을 하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들은 홈 스쿨링을 하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들은 - COVID19에 감염된 사람을 포함하여 -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있으며,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몇몇 빈첸시오회 회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대교구의 코로나바이러스 웹페이지는 아이디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장들과 성직자들 모두 서로를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Zoom으로 정기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이 모든 진정한 봉사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성 금요일과 부활대축일에 성 마리아 주교좌 성당에서 라이브 스트리밍과 함께 이루어진 텔레비전 방송은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부활 대축일 오전 시청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두 차례의 전례를 거행한 것일뿐만 아니라 특별한 복음 선포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 Abdallah와 Sakr 가족들, 그리고 이 일을 성사시킨 Seven Network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그 때의 그 경험을 조금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렇게 다양하고 보기 드문 청중들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과 가장 유대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신비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부활의 은총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 가정은 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설교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넓은 성당에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친밀감을 가지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전례를 간소화하고, 우리의 음악을 줄이고, 동작들을 축소시켜서 일년중 가장 큰 전례를 한시간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례 전통의 완전한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COVID19 이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사를 방송하는 것은 서로의 물리적 만남을 대신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성찬 전례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사 방송은 우리가 사람들의 집과 삶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저를 여러분의 방에 들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절 방송 이후로 저는 호주 전역의 사람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격려 카드와 편지를 받았습니다. 빅토리아의 한 커플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이 때문에 오랫동안 미사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둘 다 미사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매우 풍요로워졌습니다... 50년 전 시드니 신혼여행 이후로 가 보지 못했는데 성가대, 노래, 오르간, 전례, 그리고 성전 자체도. 모든 것이 완벽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Leila Abdallah 부인에게 오늘 제 2 독서를 맡긴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처럼 가톨릭 신앙에 대해 자주 고민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성전 폐쇄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모실 수도 없고, 조배를 하며 그분과 대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우리의 생명줄인 미사가 우리의 이름없는 영웅들인 사제들에 의해 매일 봉헌된다는 것은 매우 가슴 뭉클한 일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사적으로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곳에서 영적인 영성체를 하며 여전히 방송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모인다는 것에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재가 마음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집에서 성당처럼 행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성체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심해졌기 때문일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되었을 때 미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성체성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할 수 있는 피정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사목적 전략이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곧 규제가 풀릴지도 모른다는 말에 힘이 납니다. NSW 주교들, 성직자들과 평신도 신자들을 대신해서, 저는 주 총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기도와 고백성사를 위해서 성당을 다시 개방할 수 있는 건에 대해 청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미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러한 '가벼운 개방'이 먼저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든 미사든 개방이 된다면 우리는 인원, 수용(또는 사회적 거리), 그리고 위생에 대한 정부의 지침들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몇 주 동안 우리는 필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팬데믹과 폐쇄의 시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기에 교황청에서는 선물로 '고난이 닦였을 때 강한'이라는 eBook을 무료로 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다운로드하고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https://www.vaticannews.va/content/dam/lev/forti-nella-tribolazione/pdf/eng/strong-in-tribulation.-20042020.pdf>

가장 거룩한 시기에 축복과 지속적인 기도를 약속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드니 대교구장 대주교 Anthony Fisher.

+ Anthony Fisher OP

부활 제4주일

이웃 사랑/나눔 실천 소식



한인 성당도, 한인 청년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시드니 최대의 이민자 가톨릭 공동체인 실버워터에 위치한 시드니 한인 천주...
♡ 3

이번 지원은 5월 1일 금요일, 정오 시작하였다. 해당 패키지는 이스트우드 민속촌 식당, 스트라스필드 CC TRAIN 카페, 리드컴 대박 식당에서 나누어 주었다.

이번 긴급지원은 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교우들이 자원봉사자 및 기금을 지원하고, 이스트우드 민속촌 식당, 스트라스필드 CC TRAIN 카페와 리드컴의 대박 식당이 장소를 제공 하였다.

곽승룡 비오 주임신부 는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일 수록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번 나눔으로 힘들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이웃들이 어려울 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인 천주교회는 “교회는 세상의 야전 병원이어야 한다.”라는 사목방침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각종 개인용 위생용품과 간단한 먹거리를 담은 패키지 250 세트를 지원했다.

학생 및 워홀러, 임시거주자 소지자로 무급 휴직 혹은 실직 상황에 있는 가정, 그 외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되었다.

나눔 현장



스트라스필드 CC TRAIN



이스트우드 민속촌 식당



리드컴 대박 식당

5월 1일(금) 오후 12시에 스트라스필드 CC TRAIN, 이스트우드 민속촌 식당, 리드컴 대박식당에서 나눔을 실시 하였다.

이웃 사랑/나눔 준비 중



남성용 130개



여성용 130개

4월 30일(목) 저녁 6시 부터 9시 까지, 본당에서 이웃 사랑/나눔 실천을 하기 위하여 사회사목 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사목협의회와 사무실 직원이 힘을 모아 나눔 패키지를 열심히 준비 하였다.

코로나19 로 인해 주보인쇄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동안의 주보 광고를 자동 연장합니다.

항공/해상 택배, 통관, 창고보관, 기업 물류 전문

TNS

TNS GLOBAL LOGISTICS

김민선 아셀라 카카오톡: TNSAIR

0410 868 052 / cs@tnslogistics.com

프리미엄 생연어회

회 알밥용·니기리용·Sashimi Grade

전화번호(문자 오더): 0411 454 314

CHAMPION PROPERTY 챔피언 부동산

임대(RENT) 관리 / OFF THE PLAN 매물

HANS KIM LAWYER

의뢰인의 문제는 저희의 문제입니다.

정성주 (바오로) 0425 385 652

시드니 전지역 판매 임대 및 관리

BETTER REALTY

Harry Park

0419 030 826

좋은부동산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시드니 전지역 판매

크리스토퍼 조항민 0418 206 007 (7days)

사무실: Lidcombe / Seven Hills

유학 + 이민

MLK SYDNEY

학 교 상 담

비 자 상 담

T. 0420 200 303 MLKSydney

Miracle Finance

주택용자 · 재용자 · 상업건물 용자

고준서 0408 815 816

austarko@hotmail.com

AIR CONDITIONING AND ELECTRICAL

Contractor Licence No. 254766C

JUSTIN COOL

필요한 전문가 에어컨 모터 전기 소방전기

친절한 무료상담 / 오관정철 / 책임사공 / 착한가격 0411 169 320

초, 중고등부 및 청년 미사 안내

- 5월 9일(토) 부터 매주 토요일 초, 중고등부 와 청년을 위한 YouTube 생방송 미사가 시작 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초, 중고등부: 오후 4시 (영어 미사)
- 청년부: 오후 7시 30분

사무실 업무 안내

- 사무실 업무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가능
- 각종 증명서는 성당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
- 주보는 인쇄하지 않으며 성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임신부님 추천서나 면담이 필요한 경우 우선 전화 연락 바람
- 성당 홈페이지 주소: www.sydneystcc.org
- 성당 이메일 주소: info@sydneystcc.org,
- 성당 사무실 전화: 0404 089 227
- 주임신부님: 8756 3330 / 0404 089 229
- 김경수 바오로 신부님: 8756 3331/김재준 알베르토 신부님: 8756 3332
- 수녀원: 8756 3336

5월 성모성월 묵주기도와 성모의 밤 생방송 안내

- 공동체 묵주기도: 5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8시 30분
- 성모의밤: 5월 8일(금) 오후 8시 - 8시 30분

5월 8일	빛의 신비 및 성모의 밤	곽승룡 비오 신부
5월 15일	고통의 신비	김경수 바오로 신부
5월 22일	영광의 신비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
5월 29일	환희의 신비	수녀원

- 5월 8일 묵주기도는 곽승룡 비오 신부님의 개인 방송채널 '곽승룡 신부의 Catholic Book TV' 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주소를 누르시면 연결이 됩니다. 구독을 신청해주세요. www.youtube.com/channel/UCtWUuHLNAhyH-G5m8u2ZLzA

은빛대학 개학연기

- 5월 7일(목) 개학 예정이었던 은빛대학이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주보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문의: 0468 764 313 (주베로니카)

5월 매일미사책 안내

- 매일미사 5월호 부터는 당분간 한국어에서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당에서 나누어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스마트폰 앱, 굿뉴스 등에서 매일미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자

- 폴 박, 나타리아 엽
- 코로나19 후원하신분중 주보에 성함이 표기되는것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온라인 송금 방법

BSB	062 - 784	A/C Nmbe:	612 - 0301
Account Name	SKCC		
예물	이체 기제사함 및 유의사항		
교무금	교무금 봉투번호		
봉헌금	MA		
미사예물	지향하시는분 영문이름:		
비영주권 대상자 후원	CO *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신자를 위한 도네이션		
감사헌금	TO		
사순저금통	① PC 라고 기록해서 성당으로 보내주시면 호주 카리타스로 보내겠습니다. ② 호주 카리타스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 Cheque: GPO BOX 9830, Sydney NSW 2001 - Credit Card: lent.caritas.org.au		
Easter Offering	EO		

* 모든 예물은 따로 보관하셨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미사 신청
생미사 / 연미사

지향: _____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미사
신청자: _____
신청자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주의 사항:

- 1) 생미사 인지 연미사 인지를 꼭 기재 하십시오.
- 2) 미사신청은 월요일 부터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만 받습니다.
- 3) 미사신청은 원하시는 날짜 전날 오후 6시 까지 문자 메시지로만 받습니다.
위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십시오 (0432 374 634)
- 4) 접수가 되면 매일 저녁 8시 30분 까지 마감하여 수녀님과 사무실로 명단 전송합니다.
- 5) 미사예물: 헌금은 성당에 오실때 사무실에 납부 하여 주십시오.
- 6) 미사예물 계좌이체: BSB: 062-784
Account Number: 612-0301
Account Name: SKCC
내용 (Description)은 본인 핸드폰 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교무금	봉헌금	감사헌금	사순 저금통
\$4,735.00	\$130.00	\$1,700.00	\$30.00
코로나19 비영주권 대상자 후원			\$900.00

코로나19 로 인해 주보인쇄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동안의 주보 광고를 자동 연장합니다.

360 dental care

미소웃음 360 생활케어 치과
16/18 Rowe St. Eastwood
9051 2828

민중과 실력으로
당신의 치아건강을
책임집니다
종용기 요셉

- ◆ 모든 분야의 치료 진료
- ◆ 전문적이고 섬세한 진료
- ◆ 연령, 상황에 따른 맞춤 진료

LITTLE ELEPHANT studio

만삭 | 뉴본 | 아기 전문 스튜디오

T. 0404 123 788
Kakao ID. littleelephant

HANSUNG 한성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이한승

시드니 대학교 상대 졸업 (회계학과)

Suite 4D, Level 4, Redmyre House
9-13 Redmyre Rd, Strathfield (운중병원 건물 4층)
0403 737 487 / info@hansung.com.au

피부 바디

02 9747 5227
0426 722 808

meesunrang

초등전문 영어수학과인

- ◆ 독서 토론 수업
- ◆ 다중지능 적성검사
- ◆ 유학생 진로관리 프로그램
- ◆ UNSW법대, 의대 강사진

0426 908 282

키즈 피아노 PIANO LESSON

음악교실 + 피아노 레슨:

오전반 10:00 - 12:00 (3세 - 5세)
오후반 4:00 - 6:00 (K-Y6)

일시 쿨롱 전공반 = 개인 레슨
0416 463 119

McGrath

James Jin 제임스 진
Licensed Real Estate Agent

0404 071 060
jamesjin@mcgrath.com.au

도자기 공방
Helen Shin's ceramics

Insta: Helen.Shin
Tel: 0416 556 488